

# The Northeast Asian historical conflict and the naming of 'East Sea' : Why should we call the sea 'East Sea' ?<sup>1)</sup>

*Seo Hyun-Ju*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일간 역사갈등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서현주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아 제 경험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 fall semester에 미국 New York주에 있는 cornell university에서 historical controversies over Korea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강한 학생은 Korean American과 중학교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학부 유학생 그리고 대학원 학생이었으며, 모두가 한국어를 쓰고 말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15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은 한일 및 한중간 역사·영토 분쟁을 7개 주제로 나누어 10주에 걸쳐 살펴본 다음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움직임을 그 다음 2주 동안 다루고, 마지막 2주는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7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Japanese History Textbook – Overview of the issues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2. 'Comfort Women' – Why do we still have to speak of 'comfort women' ?
3. Yasukuni Shrine(靖國神社) –Introduction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Yasukuni Shrine
4. 'Northeast Project'(東北工程)
  - 4-1. Background of 'Northeast Project' & Overview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Gojoseon(Old Joseon, 古朝鮮), Buyeo(夫餘), Balhae(渤海) I
  - 4-2. Overview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Goguryeo(高句麗)
5. Controversies over Baekdu Mountain(白頭山) & Gando(間島)

---

1) 이 강의는 코넬대 Asian Studies의 초청을 받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며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재단의 입장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 6. Dokdo

### 6-1. Historical Overview of Dokdo

### 6-2. Present diplomatic arguments over Dokdo between Korea & Japan

## 7. The Name 'East Sea' – overview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name of the sea

이러한 7개 주요 역사·영토 분쟁과 그 해결을 모색하는 이론적·실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리 관련 article를 나누어주고 그에 대한 A4 2-3매 분량의 reaction paper를 강의 시작 전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읽었던 article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을 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도문제를 강의할 때는 미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죽도문제」와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반박문」을 비교 검토한 paper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는 미리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있는 「동해명칭」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일본해 호칭 문제」를 같이 읽게 했으며 이 문제를 다룬 연구자의 글도 함께 나누어 주어 두 문건 모두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 Cornell대 Asian Studies의 한국 관련 입문 강좌인 Introduction to Korea를 수강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고, (미국)고등학교에서 국제관계를 배우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를 다뤄본 학생도 있었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습니다.

동해 표기에 대한 강의는 10주차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동해 및 일본해 표기 홍보 문건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학자(송기호, 2007 『동아시아 역사분쟁』, 숲)의 글을 미리 읽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강의는 '동해' 수역의 표기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도상이나 각국 정부의 문서에는 일본해가 동해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이르게 된 경과 및 그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본해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일본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2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IHO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것이 일본해 단독표기의 국제적 정착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일본정부는 막부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던 18세기말 19세기 초에 주요 유럽 국가에서 제작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에 이미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일본의 확장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본해 명칭이 확산되었다는 한국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고지도 표기 현황을 전세계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부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박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의 2000년·2005년 조사와 한국정부의 2007년 조사에서 동해/일본해를 병기한 지도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일본해 표기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해 단독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양국이 내세우는 ‘동해’와 ‘일본어’ 표기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동해’가 한민족이 2천년 넘게 사용해 온 명칭으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것보다 7백년이나 앞서 사용되었으며, 둘째 한국과 북한의 7,500만 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토착지명을 우선시하는 지명제정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러시아 등 4개국과 접해있는 해역에 특정 국가 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현재 사용되는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라는 호칭은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접한 열도나 반도의 이름을 따서 바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이 분리되어 만들어지는 이 해역을 일본해로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에 과제로 내준 article이나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학생 한 명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왜 동해 표기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미로 이민 와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교포학생이었는데,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등 여타 주제에 대한 토론 때도 한국사회가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일본 ‘사케’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반면 그에 필적할만한 한국의 ‘막걸리’는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치밀히 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시정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해 좌우됨으로 한국의 국력을 일본에 비견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학생은 처음 발표 주제로 ‘독도 인근 해역의 경제적 가치’를 잡았다가, 발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주제를 ‘동해 표기’로 바꾸었습니다. ‘동해/일본해, 대조되는 논리 그리고 장래를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최종발표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에 대한 양국의 논리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학생이 주장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영국의 British Library와 University of Cambridge 소장 지도와 미국의 Library of Congress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이전인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해’ 표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설득력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바다 이름 가운데는 일본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국가의 국호를 따서 바다 이름을 짓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 중 특정 국가의 국호를 사용하여 명칭을 정한 경우가 여러 사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명칭 중 대부분이 논란을 빚지 않는 것은 Murpy A. B.의 네가지 이유(한 국가만이 바다와 인접, 바다의 명칭에 사용되는 국호가 헤게모니 가능성이 없는 국가, 바다의 명칭에 사용되는 국호가 침략의 역사가 없는 나라, 특별한 지정학적 고려)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Murpy의 설명을 역이용하여 ‘동해’라는 명칭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중략)

특정 국가 입장에서의 방향으로 해양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양 고지도에서 한반도가 동쪽 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되, 한자 발음 그대로 영어로 옮겼을 때의 착오를 피하기 위해 ‘Donghae’ 대신 ‘East Sea’로 불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방법과 사례에 대한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하고 세계적인 지도 제작사, 관련 정치인 및 학자들과 관계를 맺어 국제적인 협조를 얻는 것을 도모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Shin Kim, Sungjae Choo 선생님과 Chang Je-guk?Cho Jin-Seo 선생님들의 글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내린 결론인데<sup>2)</sup>,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바다 이름 표기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론에 비추어 보아도 ‘일본해’ 표기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애초 이 학생이 동해 표기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 접근만이 설득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그 외 reaction paper에 나타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본해라는 표기가 국제적으로 굳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식민주주의의 잔재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의도하지 않았던 명칭 표기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식민주주의의 잔재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이라는 것은, 특히나 국제적 인정을 받은 명칭이라는 것은 쉬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따라서, 동해 (East Sea) 일본해 (Sea of Japan)를 동시에 표기하는 게 현재로서, 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2) 이 글들은 학생이 직접 Kiss나 Dbpia 등을 통해 찾은 것들입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략)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감안할 때 '일본해'라는 명칭이 주변국간 아무런 논란 없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는 일본으로서는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장일 뿐이다. 동해표기문제는 인접국가간 단순한 지명표기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보아서 안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빼앗긴 이름 되찾기라고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바른역사세우기이며 덧붙여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국제관계 구축작업인 것이다. (중략) 우리가 일본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일본이 '동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3의 명칭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에서 동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신선하면서도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지도를 봤을 때 현재 대다수 국가의 지도가 일본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동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는 좀더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동해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과연 그 당시에 사용된 동해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일본해와 그 지리적 범위가 같은 것인지는 한번 고려해볼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사할린 제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북동지역 끝까지 동해로 인식하였는지는 비판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논리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측 주장 중에서 특히 일본해 표기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배경을 19세기말 일본의 세력 확대에 설명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서양 고지도 조사 결과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지칭한 지리적 범위가 현재 '일본해'로 불리는 해역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측 논리의 일부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일본해 단독 표기의 문제점에는 공감하여 동해/일본해의 병기, 제3의 명칭 사용, 분리사용 -한국 측 해역/동해 : 일본 측 해역/일본해를 나름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나 침략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국호를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해역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일본해 단독 표기의 문제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이미 Rainer Dormels교수가 강연에서 현재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들은 일본의 침략 및 식민지 지배와 함께 동해 대신 일본해 명칭이 사용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일본해' 명칭은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하

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sup>3)</sup>

Dormels교수는 일제의 강점과 함께 ‘일본해’가 사용된 구체적 사례로서 20세기 초반 한국에서 발간된 지도를 들었습니다. 1907년에 발간된 장지연의 『大韓新地誌』와 1908년 玄公廉이 만든 『大韓帝國地圖』에는 동해 명칭이 ‘大韓海’로 되어 있으나,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이후인 1911년 현공염의 대한제국지도를 수정 발간한 『최신조선팔도지도』에는 ‘대한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Dormels교수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1910년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당시의 신문지상에 이 해역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고 더불어 동해 혹은 일본해의 구체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 1898년 8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발간된 한글 전용신문인 『제국신문』에

1. “우리나라 동해 고래잡는 바다를 연전에 아라사를 주었는데 (중략)” 1899년 2월 23일
2. “아라사사람 케설능씨는 동해 바다 고래 잡는 권리를 말아 갈 때에 포경선 한 척에 매년 800원씩 바치겠다고 약속한 고로 일전에 동씨가 800원을 우리 정부에 보내었다더라” 1900년 4월 28일 3면

등 ‘동해’라는 한글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해라는 명칭이 당시 신문지면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 명칭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이후에도 신문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후 위에 언급한 『제국신문』을 비롯한 모든 한글 잡지와 신문들을 폐간시키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격인 『매일신보』만을 발행하였는데, 이 『매일신보』 지상에 동해 명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용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해 풍랑에 破船, 열네명 행방불명 1915년 10월 12일 3면
2. 동해 대풍랑, 어선 한 척 행방불명, 구축함이 수사 중 1924년 12월 16일 3면
3. 동해안 일대 新시설계획, 兩課長 실지 시찰 1927년 11월 29일 4면
4. 동해안 3道の 鯨漁獲逐年 감소, 만주 수출의 유망함에 鑑하여 魚族 번식책을 강구 1935년 6월 13일 6면
5. 충북선을 연장하여 동해와 연락하자, 해안선이 없는 本道の 焦急문제 1940년 2월 1일 3면
6. 大元山 세기의 발전(?), 3,000만원으로 불원간 擴築공사, 3년 후엔 동해 第一港 1941년 1월 19일 4면

이들 기사에서 동해로 지칭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강원도 삼척군 부내면 흥진(사례

---

3) Rainer Dormels(University of Vienna, Austria), 2009 「동해표기와 일본 식민주의」 동북아역사재단 수요 포럼 발표문

1), 경북 감포 연안(사례2), 동래군 기장면?울산 장생포 및 방어진 등이며, 사례 4의 기사 본문에는 “경북, 강원, 함남 3도 연안에서 매년 다량으로 포획되고 있는(중략)”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제시대 내내 - 즉 1910년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 동해는 최북단의 함북에서부터 최남단의 경남 연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ormels교수가 지적한 대로 지도에서는 ‘대한해’가 ‘일본해’로 교체된 반면,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에 동해 명칭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은 ‘동해’라는 명칭이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신보』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의 주축을 이루는 조선인들의 언어 사용 관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가 『매일신보』 지상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편으로 ‘일본해’도 동 신문에 동해보다는 등장 빈도가 적지만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해 연안 積雪, 제설차를 배치, 掃除 1936년 1월 7일 2면
2. “조선의 동해안 즉 일본해(日本海)의 호수화문제이다” 1939년 1월 4일 6면 ‘전 조선의 정기항로 193線으로 통일, 운행선박 344’
3. “조선의 동해안과 北日本 사이에 있는 양양한 日本海(일본해), 이 일본해의 호수화라는 문제는 (중략)” 1939년 1월 4일 6면 ‘日本海의 호수화 실현 5년 후에 24시간’

여기서 ‘일본해’는 일본 중부지방 연안 바다(사례 1), 조선 동해안의 다른 명칭(사례 2), 조선의 동해안과 北日本사이에 있는 바다(사례 3)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매일신보』 상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각각 한반도의 동쪽 바다와 그 서쪽에 일본 열도를 따라 펼쳐져 있는 별개로 수역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나(사례 1·2), 또는 일본해라고 불리는 수역을 조선에서는 동해로 지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사례 3). 이것을 각각 분리사용 혹은 병기의 일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신보』에 보이는 이러한 동해와 일본해의 용례는 1923년 일본이 IHO에 동해 수역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하여 1929년 발간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상황에서도, 실제 관련 지역 주민인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동해가 일본해와 별개의 바다 혹은 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사용되어, 조선총독부로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당시 조선인들이 동해와 일본해를 별개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는 지 아니면 같은 해역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은 동해와 일본해의 용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두 명칭이 지칭하는 범위를 보다 분명히 확정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동해의 용례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개화기 이전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에 걸쳐 ‘일본해’ 사용을 공식화한 일제의 35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기간에도 살아남은 동해 명칭이 가진 생명력과 그것을 가능케 한 이 이름에 대한 한국인의 애착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이후 바다 이름에 대한 주체적 명명 권리 또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국인들의 감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